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가 64장

1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2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3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4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 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예배순서

신앙고백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64장 ---------- 다 같 이

기 도 ---------- 맡 은 이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가정이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가정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되시고 기쁨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봉독 ---------- 전도서 12:1-2 ---------- 다 같 이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 씀 ---------- 여호와를 기억하자 ---------- 다 같 이

찬 송 ---------- 찬송가 430장 ---------- 다 같 이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자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인해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분배받아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가 염려했던 대로 철저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어리석은 확신은 결국 그를 실패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할 때, 유익보다는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도서 12:1)"고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청년의 때'는 인생에서 자신을 가장 신뢰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네 눈이 보이는 대로 좇아 행하라(전도서 11:9)"입니다.
즉, 자신이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을 속히 행하는 것이 삶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1)"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을 때가 있듯이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인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확신에 이끌려 삶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2)

둘째,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 특별한 은혜에 무관심하면 창조주를 기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는 죽음 전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어른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기 전, 즉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6)"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추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계속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추억은 부자라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으로 남기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